

## Kim Si-seup of Maewoldang in Gangwon-do's local folktales

Jang, Jung-young

Honorary Professor,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Korea

jjy1@gwnu.ac.kr

###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imagery, and post-evaluation that has been handed down among people based on the stories related to Kim Si-seup from Gangwon-do. Through this, we examined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Kim Si-seup folk tale and how to use it strategically.

**Methods** In preparation for the biography, discussions were conducted on the folktales related to Kim Si-seup from Gangwon-do. Based on the folktales, it was divided into Kim Si-seup as a genius, Kim Si-seup as a talent, Kim Si-seup as a feng shui geographer, and Kim Si-seup as a god, and examined his imagery, post-evaluation, and the meaning of the character in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Conclusions** Based on the story of Kim Si-seup from Gangwon-do, Kim Si-seup's appearance has various aspects, ranging from passive feng shui history with superpowers to a high-level god defending the village, and it is recognized as a result overall but accepted in the positive rather than negative aspects.

**Keywords** Gangwon-do, Kim Si-seup, local folktales, Cultural Heritage, Folk Culture, Regional Identity, Cultural Contents

---

<https://www.i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4.12.312.001](https://doi.org/10.23159/IJKC.2024.12.312.001)

Received: Nov. 20. 2024 ; Reviewed: Dec. 10. 2024 ; Accepted: Dec. 20. 2024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 강원 지역 설화에 나타난 매월당 김시습(金時習)의 모습

장정룡

### 목 차

1. 서론
2. 김시습 생애와 변모
3. 강원 지역 설화에 형상화 된 김시습
4. 맺음말

### 1. 서론

김시습은 어려서부터 그 명성에 걸 맞는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상반된 평가를 받게 되긴 했으나, 일찍이 5세 신동(神童)이라는 세종의 평을 받은 것으로부터, 최초의 한문소설이라 평가받는 『금오신화(金鰲新話)』를 지은 문학가였으며, 시대를 거스른 생육신으로서, 유불도(儒佛道)를 넘나든 사상가로서, 시대적 아픔을 체험하고 고발한 양심적 지식인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진 매월당은 역사에 드문 신인술가(神人術家), 괴한기승(怪漢奇僧), 현실에의 모반인(謀被人) 등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러한 후세의 평가가 매월당의 진면목을 제대로 말했는가는 누구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평범한 생애를 살았던 필부의 삶이라 하여도 많은 인연과 사연과 얽힌 이야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특출했던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던 인물, 수많은 시선을 따갑게 느낄 만큼 처신 하나하나를 지켜보던 왕조사회 속에서, 감추어진 아니면 덜 밝혀진 한 사람의 생애를 여러 측면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은 많은 장애를 지닌다.

그것이 야사든 평전이든 여타의 기록들에 의존하건, 구전되는 것에 의한 것이든 위험성을 내포함은 사실이다. 따라서 관찰자의 시각이 주관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형상화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강원지역을 편력했던 김시습에 관한 구전설화를 살펴보고, 지역주민에게 회자된 설화 속에 형상화된 모습을 통하여 매월당의 감추어졌던 면모와 민중들에게 각인된 모습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우리 세대에 전해진 매월당의 여러 편린들이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한 인물에 관한 형성화 작업들이 어떻게 이뤄졌는가를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1〉 매월당 김시습 자화상

## 2. 김시습 생애와 변모

김시습 일생의 변전(變轉)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기존의 여러 평전과 자신의 술회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이자(李紆, 1480~1516)와 이산해(李山海, 1538~1609)가 쓴 『매월당전집』 서(序), 윤춘년(尹春年, 1514~1567)과 이이(李珥, 1536~1584)가 쓴 『김시습전』과 매월당이 스스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양양부사였던 유자한(柳自漢, ?~?)에게 보낸 상유자한서(上柳自漢書)나 상류양양진정서(上柳襄陽陳情書), 여타의 문집,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썼던 시 작품 등에서 적출할 수 있다.

김시습의 생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바 있는 정병욱은 수학기(1세~20세), 방랑기(21세~30세), 금오기(31세~36세), 실의기(37세~48세), 만년(49세~59세)으로 나눈 바 있고,<sup>1</sup> 정주동은 성장수학기(1~21세)와 방랑은거(배회기, 21~59세)로 대별하였고,<sup>2</sup> 설중환은 현실적 이상의 추구(수학기 1세~20세), 현실과 이상의 갈등(은둔기, 21세~36세), 현실의 긍정과 부정(좌절기, 37세~48세), 초월적 이상의 추구(은일기, 49세~59세)로 나누었다.<sup>3</sup> 또

1 정병욱 (1988). 김시습 연구. 서울: 정음사. 74-116.  
 2 정주동 (1965). 매월당 김시습 연구. 서울: 신아사. 40-132.  
 3 설중환 (1983). 금오신화 연구. 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한 강동엽은 수학기(1세~20세), 방황의 시기(21세~48세), 초극을 향한 안주기(49세~59세)로 나누었다.<sup>4</sup>

매월당에 관한 진면목이 사실과 달리 쓰여져 신빙성이 희박하다는 평에도 불구하고,<sup>5</sup> 세상사나 자연환경 등, 시로 남길 수 있는 것은 모두 작품화한 것에서 그의 대체적인 삶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매월당의 자전적 시라고 말할 수 있는 〈서민(敍悶)〉 6수는 그의 생애를 일목요연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 중에서 2, 3, 4연의 내용을 보기로 한다.<sup>6</sup>

어리고 젊을 적 황금대궐에 나아갔더니/영릉께서 비단 도포를 내리셨네/지신사 불러  
무릎에 올려놓고서/중사 붓 휘두르길 권고하였네/다투어 이르길 진정한 영물이라며 다투  
어가며 봉황의 털이 났나 보았다네/어찌 알았으리! 집의 일 결판나면서/영락하여 속대밭  
에 늪을 줄이야

여덟 달만에 남의 말 알아들었고/세 돌 되면서 글을 잘 읽을 수 있었네/비와 꽃을 읊어  
서 구절을 얻었고/소리와 눈물 손으로 만져 분별했었네/높은 정승이 집안에 왕림하였고/  
여러 종파에서 고전 서책을 선사하였네/내가 벼슬하게 되는 날에는 경학으로 밝은 임금  
도우려 했네

어머니를 일 세 살에 여위었고/외할머니가 데려다가 키워주셨네/얼마 안 가 지하로  
돌아가시고/생업이 전락되어 쓸쓸해졌네/높은 관직에 오를 마음 적어만 가고/구름과 숲  
에 뜻붙임이 많아졌다네/오직 생각이란 세상일 다 잊고/마음대로 산언덕에 눕는 것이라네

이상의 시에 나타난 생애는 매월당이 유자한 양양부사에게 보낸 글, 율곡 이이가 쓴 『김시습전』과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15세 때 자모께서 세상을 떠나자 외숙모에게 양육을 받게 되었는데, 외숙모는 독자인 생질이라 하여 사랑하여 기르기를 친자식처럼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상사(喪事)를 당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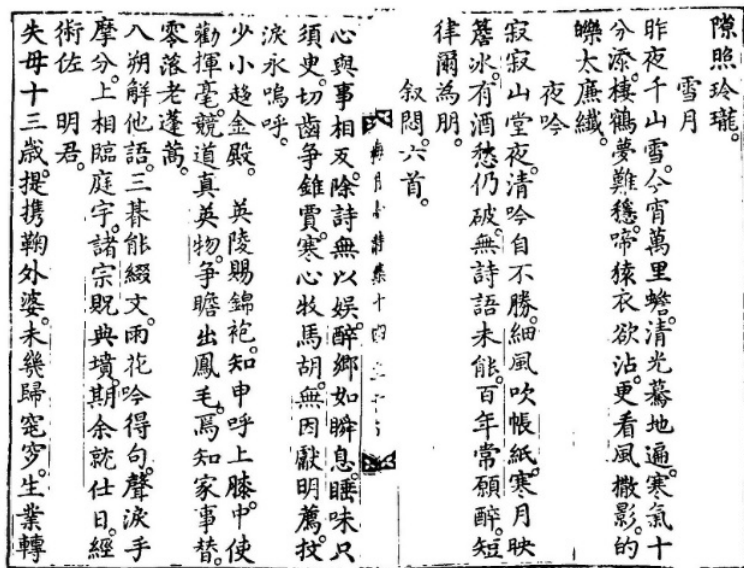
4 강동엽 (1988). 방황과 자기 성찰의 세월: 김시습의 생애와 사상. 춘천: 매월당 학술논총. 158.

5 민병수 (1977). 김시습론. 서울: 형성출판사. 156.

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436-437.

농장으로 데리고 가 서울로 보내지 아니하여 3년 동안 분묘를 지키다가 상제를 미처 끝내지도 못해서 외속모마저 이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아비인 아버지께서는 병으로 가사를 다스릴 수 없으므로 또 계모를 얻으니 세상일은 어그러지고 박해지기만 하였습니다.<sup>7</sup>

경태연간에 영릉(세종대왕)과 현릉(문종대왕)이 서로 잇따라 흥하시고 노산(단종)이 3년 만에 왕위를 양위하시니 그때에 김시습은 나이 21세로 바야흐로 삼각산 중에서 글을 읽고 있었다. 이때에 서울에서 오는 자가 있어서 김시습이 즉시 문을 닫고 나오지 아니하기를 사흘이나 하더니 이에 크게 울고 그 서적을 다 불사르며 발광하여 뒷간에 빠졌다가 도망하여 치문(緇門, 佛家)에 종적을 의탁하였는데 그 승명은 설잠(雪岑)이나 그 호는 여러 번 변경하여 청한자(淸寒子), 동봉(東峯), 취세옹(贅世翁), 매월당(梅月堂)이라 하였다.<sup>8</sup>



〈사진2〉 매월당의 시 〈서민 6수〉

7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436-437.

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34-35.

### 3. 강원 지역 설화에 형상화 된 김시습

#### 3.1. 신동(神童)으로서의 김시습

매월당의 명성이 조정까지 알려지자 세종은 매월당을 불러 시험해보고자 하였다. 『동경지(東京誌)』에 의하면 “나서 8개월 만에 글을 알았고 세 살에 시를 지을 줄 알았다. 다섯 살 적에 세종이 궁궐 안으로 불러 들여 운자(韻字)를 불러주고 삼각산 시를 짓게 하였다”고 한다. 또한 『조야회통(朝野會通)』에 의하면 당시의 상국이었던 허조(許稠)와 지신사 박이창(朴以昌)등에 의해 신동으로 불리는 계기를 맞게 된다.

5세에 『대학』을 통달하고 글도 잘 지으니, 신동이라 불렸다. 허상국 조가 그를 찾아 말하기를, “내 늙었으니 늙을 노(老)자로 운을 달고 시를 지어 보아라” 하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답하기를 “늙은 나무에 꽃이 피었으니 마음은 늙지 않았도다(老木開花心不老)”라고 하였다. 허조가 무릎을 치며 말하기를, “이 애는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신동이다”고 하였다.

세종이 이 말을 듣고 승정원으로 부르라고 명한 다음, 지신사 박이창으로 하여금 그를 시험해 보게 하면서 말하기를, “동자의 학문은 흰 학이 푸른 하늘 위에서 춤추는 듯하구나(童子之學 白鶴舞靑空之末)”하자 댓구를 지어 부르기를, “성상의 덕은 황룡이 푸른 바다 속에서 뒤척이는 듯합니다(聖主之德 黃龍翻碧海之中)”하니, 박이창이 무릎 위에 앉히고 시를 펴 많이 지었다. (...중략...) 세종이 전지하여 말하기를, “나이 자라고 학업이 성취함을 기다려 앞으로 크게 등용하리라” 하고 즉시 비단 50필을 하사하면서 자신이 운반하여 가게 하니, 드디어 각 필의 끝을 마주 매어 끌고 나갔다. 이 때문에 명성이 일국을 진동하였다.<sup>9</sup>

[설화1] 김시습하면 삼 세 때에 한시를 능히 지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5세에 사서삼경을 읽어 그의 명성이 자자하여 신동이라고 칭하였다. 세종대왕은 이 소문을 들으시고 승정원에 분부를 내려 그를 불러 재주를 시험하였다. 세종대왕께서는 “동자의 학문하는 태도는 학이 청송 끝에서 춤추는 것 같구나”하고 시구를 불러 그 댓구를 짓게 하였더니, 김시습은 곧 “성스런 임금님의 덕은 누런 용이 푸른 바다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고 대답했다 한다. 이래서 오세신동이라 한다.

김시습은 세종대왕의 은총을 입은 터라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학문에 힘써왔다. 그러나 뜻밖에 수양대군이 단종을 내쫓고 왕위에 올랐다. 그때 매월당의 나이는 약관 21세였다. 그리하여 분함을 참지 못하고 방랑의 길에 올랐다. 거짓 미치광이가 되어 세상을 기하며 나라 안의 명승지를 빠짐없이 찾아다니면서 슬픈 시가로서 자신의 시름을 달래었다. 그럴 때 이 설악산 오세암에 들어와 지내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시승기인(詩僧奇人)이라고도 하고, 이 암자에 왔다고 하여 그런 명칭이 붙었다고 한다.<sup>10</sup>

설악산 오세암의 유래를 매월당과 연관 지을 수도 있겠는데, 『영남야언(嶺南野言)』에 이르기를 “삼각산에서 글을 읽다가 단종이 손위(遜位)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때마침 변소에 들어가 있다가 크게 놀라 떨어지니, 그대로 미친 척하고 강원도 인제 설악산으로 들어가 머리를 깎았다. 그의 시에 ‘머리를 깎은 것은 속세를 도피함ियो, 수염을 남긴 건 대장부의 표시함일세’라고 하였으니, 그 길로 공은 만경대의 북쪽에 암자를 짓고 이름을 오세암이라 하였다.”<sup>11</sup>고 서술하고 있다.

매월당이 세종대왕의 은덕을 잊지 않고 있음은 유자한에게 보낸 글에서도 나타나는데, 세종이 지신사의 말을 듣고 “친히 인견하려 하였으나 사람들의 귀를 놀라게 할까 두렵다. 마땅히 친가로 돌려주어 도회(韜晦)하고 교양하기를 지극히 부지런히 하게 하였다가 나이 자라고 학문이 성취됨을 기다려 크게 쓰려 한다”<sup>12</sup>고 회상하고 있다.

윤춘년(尹春年)이 쓴 『매월당선생전』<sup>13</sup>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세 살 때 능력 시를 지었을 만큼 ‘생이지지(生而知之)’의 바탕이 있었으며, 5세에 이름을 온 나라에 진동계 하였던 신동으로서 장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 3.2. 기인(奇人)으로서의 김시습

기인(奇人) 김시습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일찍이 퇴계 이황(李滉, 1501~1570)

10 양양군청 (1990). 양주지(襄州誌). 양양: 양양군청. 828.

11 양양군청 (1990). 828.

1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 그를 가리켜 ‘색은행괴(素隱行怪)’<sup>14</sup>한 인물로 평가한 것으로도 입증된다. 이황이 허봉의 질문에 답한 글에서 ‘매월별시일종이인(梅月別時一鍾異人)’<sup>15</sup>이라 하였다. 율곡도 왕명(王命)으로 지은 『김시습전』에서 퇴계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당을 ‘심유적불(心儒跡佛)’한 인물로 보고 있으며, 시대에 이상하게 보일까 일부러 미친 짓을 함으로써 사실을 엄폐하려 하였다고 하였다. 이자(李耜) 역시 ‘행유이불적(行儒而佛蹟), 불적이유행(佛蹟而儒行)’<sup>16</sup>이라 했으니, 그러한 평가는 매월당 스스로의 언급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그가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놓고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있다.

매월당은 그림을 잘 그렸다. 일찍이 자신의 화상을 그려놓고 스스로 말하기를, “너의 형상은 지극히 묘하고 너의 언동은 크게 지각이 없으니 마땅히 산 구렁텅이에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sup>17</sup>

이 내용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묘하다고 표현하였을 만큼 기인적인 면모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향과는 달리, 언동이 지각없다고 한 것은 그가 표현한 바 세상과의 갈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스스로 말할길 ‘신세상위(身世相違)’, ‘신세괴리(身世乖離)’라고<sup>18</sup> 하고, ‘심여사상반(心與事相反)’, ‘지여시사괴(志與時事乖)’라고<sup>19</sup> 했던 구절에서도 품은 뜻과 세상일이 서로 어긋남에 따라 현실에서 소외된 자유인 또는 방외인으로 심유적불(心儒跡佛)보다는 오히려 비유비불(非儒非佛) 또는 진유진불(眞儒眞佛)의 기인적 삶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고뇌를 엿볼 수 있게 된다. 강릉지방 향토지인 『증수임영지(增修臨瀛誌)』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전한다.

14 색은행괴(素隱行怪): 궁벽스러운 것을 캐고 괴상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중용(中庸)』에 “子曰 素隱行怪, 後世有述焉, 吾弗爲之矣.”라고 경계한 것이 있다.

1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7 김병환 편 (1933). 증수임영지(增修臨瀛誌). 강릉: 강릉고적보존회.

1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설화2] 동봉 김시습이 중이 되었을 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향해 통곡하다가 잠시 뒤에 돌아와 사미의 종아리를 치니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려웠다. 혹자가 “어찌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가?”라고 물으면 사이가 말하기를, “그의 행동이 신기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고 하니 모두가 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하여 꾸짖었다 한다.

또 말하기를, “법사는 매달 초하룻날에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들고 부처님 앞에 꿇어앉아 5~6일을 움직이지 않아도 흔들리거나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다”고도 하였다.

광묘가 일찍이 원각사 주지에 명하여 (동봉을) 부르니 분화가 자못 엄중하였다. 동봉이 반쯤 취해 가사예다 마른 청어를 숨겨 가지고 갔는데 엮은 것이 약간 드러나 보였다. 광표가 못 본 체하고 있었는데 동봉이 잘못하여 뒷간에 빠져서 입고 있던 옷이 모두 더러운 오물로 범벅이 되자 광묘는 그를 내쫓아 버렸다. 매번 남과 더불어 토지와 집 문제로 송사를 할 때 마다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하고 항변하여 승소하면 문밖에 나가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세상일이 모두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고는 승소한 문권을 모두 찢어버리니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몰라 항상 흘겨보았다고 하였다. 뛰어난 문장가들이 그의 어그러질 듯 하면서도 이치에 맞는 문장에 감복하였다.

사가당 시에 홍참허가 학문상의 세력을 잡았다는 것을 듣고 추강에게 글을 보내 말하기를, “천하에 가소로운 일은 대제학이 되어 지위가 높아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성묘가 문관에게 명하여 두시를 주해하도록 하자 동봉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이런 늙은 놈이 감히 두시를 해석하려 드느냐?”고 하니, 어떤 사람이 점필재 김종직 선생의 주장이라 하였다. 동봉이 말하기를, “종직은 낳은 지 이래쯤 되는 강아지가 겨우 눈과 귀가 생긴 것과 같다”고 하였다. 동봉은 늘 새끼줄로 동파의 시를 묶어 끌고 다니면서 이 책은 우리 집 광대라 하였다.

[설화3] 동봉 김시습이 일찍이 강릉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벽에다 큰 글씨를 썼는데, “슬프다! 기린이 때가 아닌 때에 나서 서쪽 사냥터에서 엽사를 만났네. 만약에 공자가 한번 어루만져 주지 않았다면 천년만대에 노루의 신세가 될 뻔하였네”라 하니, 부사가 이를 깨닫고 그를 놓아주었다. 후에 또 그 옥에 갇혀 자면서 말하기를, “이 집은 나의 옛 여사”라 하였다.<sup>20</sup>

20 김병환 편 (1933). 증수임영지(增修臨瀛誌). 강릉: 강릉고적보존회.

[설화2]는 김시습의 기인행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사미의 말이 “이기신이고불거(以其神異故不去)”라 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설화3]에서는 운명에 순응하는 듯한 체념적 인생관을 나타내고 있다. 처음에는 유학을 한 것이 부끄럽다고 한 ‘자괴학유술(自愧學儒術)’<sup>21</sup>의 표현처럼 광승(狂僧)의 삶을 살았던 그가 다시 유교의 본령으로 돌아왔음을 이 설화에서 암시하고 있다.

강원도 강릉, 철원, 양양, 춘천일대를 떠돌아 다녔던 매월당은 곳곳에 많은 시편과 이야기 거리를 남고 놓았는데 양양의 지명인 법수치를 매월당이 지었다고 전한다. 이곳에서의 그의 행적은 선조의 명으로 율곡이 쓴 『김시습전』에 보이는 내용들과 흡사하다.

때로는 심은 곡식이 매우 성해서 이삭 진 것이 불만한테도 술에 취해서 낮을 휘둘러 잠깐 동안에 다 쓰러뜨려 땅에 버리고 인해서 목을 놓아 통곡하였다. 제목(除目)에 높은 벼슬한 자가 혹시 인망(人望) 아닌 자임을 보면 반드시 통곡하며 말하기를,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사람에게 이런 업무를 맡겼는가?”라고 하였다.<sup>22</sup>

[설화4] 법수치라는 것은 그건 누가 지은 고 하니, 김시습이 매월당, 매월당이 지었어요. 법 法자, 물 水자, 재 峙자요, 이 법수치는 김시습이 이리로 많이 댕겼어요. 그때때 댕기면서 운문암이라든지 많지요. 경치 좋은데, 어성 십경이라든지. 댕기면서 노는데 여기 댕기면서 농사도 많이 지어 지었다가 봄과 여름에 농사를 많이 지어 났다가는 벼가 인제 주머니가 수수하니 껍쩍에는 날을 휘익 내부려서 말짱 죽여 놓고는 통곡을 하고 가요 그 분이 그래서 사람이 미친 짓 하는 거야. 그리고 양양부사라든지 그런 것 볼적에는 “저것들 백성들이 불쌍하다”, “백성들이 저것들 때문에 고생한다”고. 그래 “백성이 무슨 죄냐” 말이야. 그래 통곡을 해고 댕기고, 이 분이 불경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수치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또 절이 있었고, 김시습이 청간공인 그 양반이 그 불설을 좋아하고 재주가 있고 그래 놓으니 여기 많이 댕겼어. 그래 어쩔 수가 없다 말이야. 그런 분이 있었어. 그런 분이 늘 다녔어 경치가 좋으니까 말이야.”<sup>23</sup>

2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한국구비문학대계 2-4.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73.

[설화4]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는 매월당이 양양부사 유자한에게 보낸 글에서 알 수 있다. 설화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내용이지만 현실적인 생활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자주 두터운 은혜와 곡진한 대접을 받으니 지극히 감격합니다. ...저도 또한 상국의 자제들과 함께 고요한 곳을 가려 글을 읽고자 하지만 금년만은 이 골짜기에 곡식을 심은 것이 보리에서 조에 이르기까지 합하여 말에서 섬까지 되었고, 또 땅도 본래 기름져 이삭을 드리운 조로 말하면 가을 수확이 수십 섬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읍치(邑治)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 상국의 비호를 받게 된다면 내년엔 넉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더니 이제 문학에 돌아와 보니 며칠 안 되는 동안에 산 쥐가 모조리 손상하여 남은 이삭이라곤 없어 우두커니 서서 탄식할 뿐입니다.<sup>24</sup>

또한 매월당의 행적에 관하여 [설화3]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이자의 서문은 다음과 같다.

좋은 때나 좋은 날을 당할 것 같으면 명수(明水)와 향불을 갖추어 가지고 예전 형인들의 무덤을 찾아가 절하든가, 혹은 높은 석벽 위에 올라가 밝은 달을 맞이하여 눈물을 뿌리며 돌아오기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혹은 나무를 깎아 농사꾼이 밭 갈고 김매는 형상을 만들었는데, 많기가 1백여 벌이나 되었다. 그것을 책상 옆에 벌려놓고 온종일 숙시(熟視)하다가 곧 통곡하고는 태워버렸고, 또 어느 산에 들어가 중들에게 화전 갈기를 권하여 가을 수확이 많게 되면 나무를 파서 통을 만들어 시냇가에 놓고 술을 빚어 넣었다가 바가지로 가지고 권해 마시게 하기를 두어 달이 지나서 그쳤다. 그가 세상을 분개하고 시속을 미워하며 부지런하고 호방하기가 흔히 이와 같았다.<sup>25</sup>

### 3.3. 풍수사(風水師)로서의 김시습

매월당이 철원지방의 설화에서는 풍수지리에 밝은 술사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지명설화와 연관되고 단순히 일화를 남기는 정도의 위인으로 전승되고 있음도 흥미로운 일이다.

2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기인의 행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려 깊은 처세와 예언가, 풍수사로서 전승되는 김시습의 모습에 의문점이 있다. 단순히 보신을 위한 처세수단으로 행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의식 속에는 매월당의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고픈 욕망이 작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기인 또는 모반인의 모습과는 다른 일상적 변모가 주목된다.

[설화] 매월당이 단종 시절에 생육신 사육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생육신 중에 그 김시습이라는 양반이 말하자면 생명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쳐서 여기를 도망을 왔던 모양이에요. 그때 시절로 말하면 참 연도가 오래되었지만 예, 김화산이었는데 박씨네가 밀양 박씨가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터를 가설라무네 그냥 분산을 해살았고 집단으로 살진 못했던 모양인데, 그게 그 양반이 오니깐 그 양반더러 “터를 잡아 주시오” 허니까 그 양반이 여기여기 지세를 직접 돌아보고, 또 사구문이라는 데 가 돌아보고, 그러니까 지세보다는 사구문이라는 데가 그게 낫드란 말이야. 그래 “여기다가 자릴 잡아라” 그래, 김시습이 박씨네를 잡아 주고 했다는 말이고. 그런 반면에 박씨네 선조에서 그때 당시에 생육신 정치를 거기 관련돼서 가담해서 그 양반들 역시 고향에 돌아와 가지구선 말하자면 그 김선생과 같이 단종을 다시 모실려고 하다가, 그렇게는 했지만도 여의치는 못했고, 그런 반면에 그러다가 그러니깐 그 양반들이 돌아갔단 말야 그래서 박씨네 말하자면 8인이 되나, 또 김선생 그 양반꺼지(까지), 그 양반꺼지 그래서 아홉이 되어 구은이라 하는거야. 그래서 거기에 지금 사당을 왜정 때도 세울려고 그러고 그전에도 세웠는데 6.25 사변 때 다 없어졌고, 여기 사람들 다 피난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렇게 허허벌판이예요. 이렇게 됐다가 차츰차츰 고향 땅이라고 찾아온 사람들, 외지에서 찾아온 사람들, 이렇게 해서 부락이 형성되고 또 그 박씨네 자손이 이전에도 분향을 하던 무엇이고 하니까 그래 다시 인제 이걸 해보자 해 가지고 다시 세워 가지고 구은사(九隱祠)라는 걸 세워 가지고 춘추로 제사지내고 있죠.<sup>26</sup>

이상의 구은사와 관련된 기록은 『매월당집』에도 전하는데, 사곡마을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설화에서는 매월당이 터를 잡아 준 것으로 되어 있어 풍수사로서 지관의 면모를 보여 준다. 매월당이 철원지방에 들어와서 숨어 산 지역은 금화군 근남면 육단리 어둔산의 초막이라 한다.<sup>27</sup> 이곳은 매월당이 조상치(曹尙治), 박도(朴渡)와 그의 일가를 합하여 9명이 숨

26 유인순 (1988). 철원지방 인물전설연구. 강원문화연구 8, 83-84.

어서 살며 단종 복위를 꾀했다. 한다.

경태(景泰) 을해년(1455) 단종이 손위(遜位)하던 날을 당하여 매월당 김선생, 정재(靜齋) 조선생, 돈수 박공의 부자, 형제, 숙질 7인 모두 합하여 9은(隱)이 서로 이끌고 자취를 감추어 처음으로 이 고을(곧 김화)에 들어왔다. 고을 남쪽 10리 지점 사곡마을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총압과 행정 사이에서 마음대로 즐겼다고 한다. 대개 시를 읊은 것이 있으면 풀잎에 써서 물에 띄워 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많이 전하지 못하고 다만 화자규사(和子規詞)만이 남아 있다.<sup>28</sup>

[설화6] 그리고는 그 양반이 초막골이라는데 와서 그 초당을 짓고 산골짜기에서 숨어서 살았는데 거기서 전나무로 지팡이를 짚고 넘어가다가 조씨네 묘터를 찾아갔거든. 제비형 국의, 그 묘자릴 가가지고 금시발복을 하라고 잡아줬는데, 그것을 친절하게 잡아 주고선 금시발복 자리라 하드래. 집에 내려와 보니까 지동이 하나 이렇게 넘어갔거든. 그래 지동을 일퀴 세우면서 보니까 금항아리가 있드래. 그래서 부자가 났다는 전설이 있고.<sup>29</sup>

[설화7] 그래서 거기서 쪽 내려오다가 보니까 오리벌이라는 데가 있어. 그 오리에다가 봉어명당을 잡았어요 그래 이걸 이렇게 파고선 뭐 요만큼 파고서 묻으라고 하드래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구. 더 파고 묻어야 된대니까 안된다고 말이야 더 파면, 그래 더 찍으니까 봉어 눈깔이 찍혀 나오드래. 그래 도로 묻고서 거기다 묘이를 허장을 둘하고, 신체를 하나 묻고서 가보면 허장이 돌이고 신체가 하나고 그래요. 그래 그러구서는, 그 앞으로 봉어는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 물에미 칙량굴에서부터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서 거기서 물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 오리나무 수풀인데 그것을 비고서 전부 농토를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가 골답이지. 그래 인제 거기서 또 건너와 가지구 벌의 명당을 또 잡았는데 거기도 요만큼 파고서 묻으라고 허드래 더 파면 안된다. 아. 그래도 부모를 요기다 묻느냐고 더 파야 한다고, 그러믄 만상제는 가마를 쓰고, 작은 상제는 뭇 솟을 쓰고 있으라고 허드래. 그래 거기를 냅다 파니까 대번에 벌이 나와서 쏘는 바람에

27 철원군 (1977). 향토지. 철원: 철원군청. 383.

2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국역매월당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9 유인순 (1988). 84.

가마가 다 터지고, 별떼가 허양으로 다 달아났데나, 그 박씨네가 영암 박가지? 그 박씨네가 허양 들어가서 더 많이 별을 퍼지게 했대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sup>30</sup>

[설화6]과 [설화7]은 집 자리를 잡고 명당을 찾아주는 신인술사(神人術士)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 철원지방의 설화에서는 매월당이 단종 복위보다 풍수에 뛰어난 능력을 지닌 것이 더 많이 조명된 것은 그가 타지인이고 잠시 거쳐하다가 떠난 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31</sup>

다음의 [설화8]을 보면 반드시 매월당이 봉어명당과 관련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 고을을 지나가던 노승을 매월당으로 변화시킨 명당이야기는 진위여부를 떠나서 매월당의 행적을 지역의 풍수설화에 맞추어 놓은 감이 없지 않다. 양양 법수치 지명설화의 경우도 그러하며, 오세암 유래도 매월당과 애써 관련을 지으려 한 흔적이 보인다.

[설화8] 봉어명당, 철원군 서면 와수오리에 있다. 이 지역에서 세거 하던 밀양박씨 문중에서 초상이 났다. 장례식을 치르느라고 묘지를 정하고 파 들어가는데 때마침 이 고을을 지나가던 노승이 이 광경을 보고 이 묘자리를 더 이상 파게 되면 좋지 않으니 더 파지 못하도록 상주에게 일러주었다. 그러나 상주가 묘자리를 보니 관을 묻기에는 너무 얇은 지라 “왜 땅을 더 못 파게 하는지요?” 하고 묻자, 노승은 “이곳을 더 파면 봉어의 눈을 다치게 되며 그렇게 되면 당신네 가정이 상서롭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주는 이를 개의치 않고 인부에게 어서 곡괭이 질라고 호령했다.<sup>32</sup>

[설화9] 지금 현재 오세암에 관한 설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의 어린 조카가 그러니까 설정대사의 조카가 득도를 했기 때문에 오세암이라고 했다는 설이고 그 다음이 매월당을 그 당시에 신동이 오세 신동이라 했는데 매월당이 주로 은거를 했는데가 오세암을 중심으로 은거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오세암이라고 한다. 이렇게 양 설이 있는데 분명히 밝힌 것은 오세암은 오세의 조카, 설정의 조카의 득도로 인해서 오세암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매월당의 자서전에서 스스로 밝혔습니다.<sup>33</sup>

30 유인순 (1988). 84.

31 유인순 (1988). 95.

32 철원군 (1992). 철원군지(하). 철원: 철원군청. 1522.

이상의 [설화8] 봉어명당과 [설화9]의 오세암 설화에서 볼 수 있듯이 매월당과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지역설화에 매월당이 등장되고 있음은 그에 대한 당시 민중의식의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매월당을 민중들의 편에서 긍정적인 인물로 받아들여지는 계기를 풍수에 밝은 인물로 형상화한 것에서 나타난다. 이는 당시의 위정자로 강원 일대를 다니면서 파묘와 산혈을 끊어 인재를 막았다는 송강(松江) 정철,<sup>34</sup> 1508년 강릉 부사였던 한급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는 다른 것이다.<sup>35</sup>

따라서 민중들의 입장에서 조선조 관료계층과 세조의 왕위찬탈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풍수설화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반면 이들 사건으로 인해 생육신으로 떠돌아 다녔던 매월당에 대한 동정감이 우호적인 인물로 형상화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 3.4. 신격(神格)으로서의 김시습

강릉지방에서는 매월당 김시습을 소성황신(素城隍神)으로 모셨다. 지금은 소성황당이 없어졌으나 지역과 관련된 인물이 신격화된 사례다. 일제시대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에 의해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강릉 옥천정에서 신을 모시는 것은 창해역사 어마 장군신과 송불소성황신이 있으며 각별히 신당이 있어서 그 안에 안치해 놓고 있다. 매월당은 강릉 김씨 명주군주 김주원의 자손이라 한다. 조선에 유명한 신하였으나 세조의 왕위 계승사건이 일어나자 단종왕을 위해서 절개를 지키려고 관직을 버리고 중이 되어 산수와 벗했던 고결한 사람이다. 그러나 시도 글도 음악



〈사진3〉 1920년대 강릉 매월당 소성황당 모습

3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한국구비문화대계 2-4.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47.

34 김선풍 (1983). 전설에 나타난 정송강(鄭宋江) 관대논문집 11, 7-19.

35 최철(1972). 영동민속지. 서울: 통문관. 314-315. “그는 풍수지리에 밝아 경포대를 현재의 자리에 옮겨 놓았다. 그것은 박씨 종묘의 묘를 방해하여 박씨 일문을 망쳤다고 한다. 그리고 한급은 강릉에 문필재사가 많이 남을 것을 시기한 나머지 인부들을 동원하여 모산봉을 석 자나 낮추었다고 한다.”

도 그 묘한 이치를 터득하였으며 어려서도 기지가 뛰어났는데 예전에 왕으로부터 십 반의 천을 받았는데 혼자서 이것을 가지고 가도록 명령을 받자 옷감의 끝과 끝을 당겨서 문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왕이 놀랐다. 또한 십 삼세 때에 제목을 받고 시를 지을 것을 명받자 그 자리에서 명작을 만든 수재였다고 한다. 이런 전설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다른 문제로 하고 아무튼 강릉 출신으로서 비범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신으로 변하여 제사하고 섬기는 점은 흥미로운 일이다.<sup>36</sup>

『부락제(部落祭)』에는 소성황당 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일제강점 하에도 매월당을 성황신으로 신봉했음을 알 수 있다. 1928년 강릉을 답사하고 기록한 아키바 다카시(秋葉隆)의 조사에도 음력 5월5일 오전 8시부터 대성황당 앞에서 가면극을 행했으며 신간과 화개를 받들고 약국성황과 소성황에서 기도를 올리고 연회를 했었다는 언급이 있다.<sup>37</sup>

또한 지역에 전하는 설화에 의하면 육성황당(肉城隍堂)이었던 창해역사(滄海力士)에게는 육고기를 받쳤으나 소성황신인 매월당에게는 나물만을 제물로 써서 그가 불문에 귀의했던 일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소성황당이 지금은 없어졌으나 인격에서 신격으로 매월당이 상승되었음은 풍수사로 변천되어 전승되는 설화와 달리 지연성을 강하게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 4. 맺음말

매월당에 관하여 전승된 강릉, 양양, 철원 등지의 설화를 중심으로 평전(評傳)과 대비하여 논의를 진행하면서 불세출(不世出)의 인물에 관한 생애를 살펴보았다. 설화가 지닌 강한 전승력은 민중 속에 남아 있는 매월당의 의미와 함께 사후에 그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를 쉽사리 발견하게 한다. 매월당 김시습의 설화에 형상화된 모습은 풍수를 이용하여 해를 끼친 부정적 인물로 형상화되었던 다른 인물들과 달리 민중들의 편에서 그들에게 우호적이며 유익하고 민중들의 편에서 있는 긍정적 인물로 인식됨을 알게 되었다.

또한 어려서 신동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기인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었으며 불행하게도

36 村山智順 (1937). 部落祭. 京城: 朝鮮總督府. 61-71.

37 秋葉隆 (1937). 江陵端午祭. 民俗學 2(5). 285-294.

충남 부여군 외삼면 만수리 홍산 무량사(無量寺)에서 쓸쓸히 59세의 삶을 마감하였으나 그의 본관인 강릉에서는 사후에 신화적 인물로 승화되고 신앙인물로 추앙되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신동으로 그의 꿈을 꺾지 못하고 기인의 삶과 한갓 풍수사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도 했으나 결국 신격으로 승화되어 한 많은 삶을 보상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논하였듯이 매월당의 전모가 이상의 몇몇 설화상의 이야기로 드러나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보다 많은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아야 보다 정확한 매월당의 민중적 형상화가 포착될 것으로 본다.

강원지역 설화에 나타난 매월당의 모습은 초능력을 지닌 소극적인 풍수사에서부터 마을을 수호하는 차원 높은 신격으로 설정되는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기인(奇人)으로 인정하면서도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에서 수용하고 있음이 전승설화에서 파악된다.

## **[References]**

- Akiba Takashi. (1954). Korean Folk Magazine, Tokyo: Rokusan Shoin.
- Choi, Chul. (1972). Youngdong Folklore. Seoul: Tongmungwan.
- Jang, Jung-young. (1966). The history of Daegwallyeong culture. Gangwon: East Coast Development Research Society
- Jang, Jung-young. (2001). The customs of Gangwon-do Province. Seoul: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Jang, Jung-young. (2002). A folk study of Gangwon-do Province. Seoul: Institute of Korean Studies.
- Jang, Jung-young. (2007). Exploring the field theory of Gangneung Dano Festival. Seoul: Institute of Korean Studies.

## 강원 지역 설화에 나타난 매월당 김시습(金時習)의 모습

장정룡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강원 지역에서 전해지는 김시습 관련 설화를 토대로, 민중의 의식 속에 전승되어 오는 매월당의 의미, 형상화, 사후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서 김시습 설화의 양상과 특성,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 강원 지역에서 전해지는 김시습 관련 설화를 평전(評傳)과 대비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설화를 토대로 신동(神童)으로서의 김시습, 기인(奇人)으로서의 김시습, 풍수사(風水師)로서의 김시습, 신격(神格)으로서의 김시습로 나누어, 민중의 의식 속에 있는 그의 형상화와 사후 평가, 인물이 지닌 의미 등을 살펴보았다.

**결론** 강원 지역에서 전해지는 김시습 관련 설화를 토대로, 김시습의 모습은 초능력을 지닌 소극적인 풍수사에서부터, 마을을 수호하는 차원 높은 신격으로 설정되는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기인(奇人)으로 인정하면서도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에서 수용하고 있음이 전승설화에서 파악된다.

**핵심어** 강원도, 김시습, 김시습 관련 설화, 이야기 문화, 지역적 특성, 전승의 의미, 콘텐츠

이 논문은 2024년 11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11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2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